中國政局

王總理辭職說

山東協定案件內容

張使者機械購入契約締結

山東細目協定委員會開會

山東鐵道問題解決在邇

赤軍防禦策協議

衆議院、山東協約調印質問

王正廷氏에 對하야

高總長留任反對

保安隊員拉去

(靑島一日發電) 中國側의 保安隊…千四百名이 十一月三十日朝에 …하야 同日夜東花旅舍에서 在靑官民과 宴會中土匪가 襲擊하고 保安隊의 幹事某督軍密綻姬、靑島委員主任梁氏等三十五名을 人拉致하얏는대 姬와 梁氏는 放免아니하고 某는 土匪의 根據地까지 拉致되얏더라

別報

(靑島一日發電) 日本憲兵隊의 報한 바에 依한즉 十一月三十日夜 天津町 靑島商務總會에서 瑞石 保安隊幹部等은 土匪의 頭目孫外五名의 頭目等과 會合하야 秘議한 바가 有하얏는대 同夜九時에 至하야 瑞外 萱山東督軍署警察外三名을 拉致하얏는 바 此는 土匪를 握手코자 하야 失敗한 者이니 萱土匪를 取締하기 爲하야 十一月日來靑한 바이라 此로 因하야 靑島中은 非常한 混亂이 甚하얏는대 爭亂은 無하리라더라

東三省方針

靑島商埠督辦

熊省長任命

歐米情報

米國國務省發表

華府條約調印問題에 對하야

(華盛頓三十日發電) 米國國務省은 發表하야 日米國政府의 認知하…

米軍『라인』地方駐在

中國勞働者移入許可案提出

米國自働車數

馬克又復低落

(伯林十一月三十日發電) 馬克時勢는 英一磅에 對하야 三萬八千百五馬克、米一弗에 對하야 八千三百五

埃及內閣總辭職

(倫敦電) 埃及內閣이 總辭職하얏더라

英下院 愛蘭議案通過

(倫敦十一月二十九日發電) 英國下院은 愛蘭自由國에 關한 議案을 若干通過하얏다더라

愛蘭自由國政府、共和軍處刑

(다부린 十一月三十日發電) 愛蘭自由國政府는 十一月三十日朝三名의 叛徒를 死刑에 處하얏다고 公表하얏더라

愛蘭共和軍首領米國亡命說

(베루〇스드 十一月三十一日發電) 愛蘭共和軍首領『세베레라』氏는 米國에 亡命하라고 機會를 窺覦한다고 報하며 自由國軍은 同氏를 搜査中인데 一方으로 共和軍은 同氏와 亡命을 容易케하기 爲하야 北部及南部地方攻擊을 計畫中이라더라

英軍艦廢棄中止

海軍協定批准交換까지

(倫敦電) 英國은 海軍縮少協定의 批准交換되기까지 軍艦의 廢棄를 中止하얏더라

英佛伊首相賠償問題會議

(巴里十一月三十日發電) 英、佛、伊首相은 負債問題及賠償問題를 審議하기 爲하야 十二月初旬에 倫敦에 會合한다더라

希臘前帝有罪決定

(巴里十一月三十日發電) 『베루 쓰라ㅣ도』의 來報에 依한즉 希臘革命派는『조ㅣ지』王을 王宮에 監禁하얏는데 王은 有罪로 決定한 閣員을 除名하고 希臘退去의 許可를 請한 所以라더라

佛前首相聲言

(巴里十一月三十日發電) 佛國의 前首相『크레만소』氏는 自己의 使命이라고 壯談하고『스푸링휠드』에 前往하야『린고루ㄴ』墓에 花環을 呈하얏더라

佛軍獨行動未定

獨逸에 對하야

(巴里三十日發電) 佛國의 對獨態度는『루ㅣ이』地方을 占領하는 準備는 되얏스나 軍獨行動을 取함에 對하야는 아즉 決定치 아니한 貌樣이더라

米國政府回敎問題訓令

(華盛頓十一月三十日發電) 米國政府는 未久에『로쟈ㄴ누』會議에서 土耳其回敎의 自由問題에 關하야 米國의 態度를 說明하라고 同會議傍聽의 駐伊米大使『자일드』氏는 此에 對하야 訓令을 受한다더라

定例內閣會議

(東京電) 一日日本內閣々議는 首相官邸에 開會하고 內田外相의 外交經過報告가 有하고 人員淘汰의 順序方法及退職手當의 給與細目에 對하야 協議한 後決定하얏다더라

米穀需給調節

預算改正

(東京電) 日本農商務省은 米穀需給調節에 關한 特別會計豫算總額을 七千萬圓으로 豫定하얏는데 此는 米買上의 內定을 意味한 者는 아니오 다만 買上의 必要를 生한 境遇의 準備로 編成한 者이라더라

旅費支給請願

(靑島一日發電) 撤退할 日本民政部特히 日本鐵道鑛山遞信部方面에서는 退職手當의 公表한 者가 無하나 日本守備軍當局은 爲先月給三月分을 退職賜金으로 支給할 事를 內達하야 殆히 命令的으로 何人은 幾月幾日까지 日本에 歸還하라고 宣告하얏고 個人의 在留希望을 不許할 方針을 執하는 中입으로써 各官廳의 判任官以下는 手當支給額의 公表雇傭員에도 判任官과 同率의 旅費를 支給하라고 各處에 集會하야 各各 嘆願을 한다더라

福釜無線電通話

日本에서 新記錄

(東京電) 日本遞信省에서는 日下福岡釜山間에 無線電話의 試驗中인데 去月二十六日午後六時부터 七時半까지 福岡의 送話가 茨城縣平磯의 電信試驗所出張所에 明瞭히 通達하얏는데 其距離約六百五十哩이며 受話音聲의 響度는 普通電話와 如히 大치는 아니하얏든바 電力은 僅히 半基가 不足하고 福岡의 送話도 此遠距離와 通話함이 可能함은 新記錄이라더라

滿毛株主總會

(東京電) 滿蒙毛織會社는 當期利益二萬二千九百三十二圓과 前期繰越三萬六千六百十圓合計金五九千五百四十二圓을 後期로 繰越할 件을 附議可決하얏다더라

朝鮮文化的施設

朝鮮大學은 再明年度부터 開校

女子專門學校分校設立은 未定

半井學務課長談

挽近朝鮮의 文化的向上이 顯著히 發達하고 朝鮮人間에 向學熱이 勃興하얏슴은 周知의 事實이라 總督府當局에서 時代의 趨勢와 共히 朝鮮에 또 文化的諸施設의 完備를 期함은 가장 必要하고 且緊急한 事實이라 하야 本十一年度以來朝鮮大學의 設立을 計畫하고 着々此를 進捗하는 中인데 此에 關하야 總督府學務課長半井氏의 談議가 如左하더라 時代의 變遷과 共히 各國의 在한 思想의 動搖餘波를 受한 結果朝鮮內에 思想이 顯著히 文化的方面에 向上하는 中입은 事實이나 最近朝鮮에 出版界의 活躍을 見할지라도 其一部分을 可知할 바이며 特히 朝鮮人方面의 月刊雜誌即各人의 修養機關紙로 發刊되는 者가 京城에만 十七八種인데 如斯히 各個人이 覺醒하야 眞摯한 方面에 進行中입은 참으로 可喜할 事이며 當局에서 目下懸案中인 朝鮮大學은 其後具體的決定이 成立하얏슴으로써 明十二年度부터 工事에 着手하고 大正十三年度부터 開校케 할 方針인데 此施設도 相當한 經費를 要할지니 豫算決定의 如何에 依하야 不得已 其方針을 變更할지도 不知하는 바이며 中央政府에서도 朝鮮에 文化的施設의 急함을 認하고 且本府의 計畫에 對하야는 充分한 諒解를 得하면 豫定方針과 如히 大正十三年度부터 開校함에 至할 줄로 思惟하며 最近朝鮮人間에 平民大學을 設立하라고 有志間에 此를 運動中임을 聞한 바 此는 참으로 歡迎할 事인 故로 當局에서도 可成的便益과 援助를 與할 豫定인데 朝鮮教育界를 爲하야 利益됨이 多大할 줄로 思惟하는 바이며 又近者松方土方諸公의 發起에 依하야 設立된 帝國女子專門學校에서 京城에 分校를 設立한다 傳하는 貌樣인데 自己는 一日에 비로소 新聞紙上에서 知하얏스나 何等의 通知를 接치 아니한 故로 其眞否의 如何에 關하야는 聲明키 難하나 萬若設立한다 하면 참으로 可喜할 事로 思惟하노라 云々

東農實科生休校

(東京電) 日本東京帝國大學農學部實科生四百名은 實科獨立問題에 關하야 十一月三十日來休校하고 一日午前十一時文部省에 參集하고

白軍艦上海向發

(釜山發某所着電) 釜山碇泊中이든『스타로크』艦隊十五隻中의 十三隻은 二日午前八時에 出港하야 上海로 向하얏고 其外의 二隻도 午後四時에 出港할 預定이라더라

沿海縣狀況

民心動搖

今朝浦鹽의 着報에 依하면 沿海縣의 狀況은 左와 如하다더라 赤軍의 浦鹽點領爾來에 至하기까지 極히 平穩無事한 模樣을 傳하나 此는 表面上에 止함이오 其裡面은 頗히 不穩한 空氣가 充滿한 故로 再次混亂狀態에 陷할 事를 一般이 憂慮하며 日本軍의 撤兵과 同時에 入市한 軍司令官『우보레윗치』氏는 政權을 掌握하고 閣員은 全部共産黨인바 前浦鹽政府의 閣員『보루와이레푸、도란고스기ㅣ』兩將軍及오ㅣ레ㄴ니리보이도푸』氏는 赤派의게 逮捕되야 哈府에 護送되얏더라

沿海縣主要機關

國民革命軍主腦部▲軍司令官『오보레윗치』▲參謀長『레베더푸』後貝加爾第一師團浦潮衛戍司令官『쓰라쓰고푸』▲烏蘇里鐵道長官『가스라루』沿海縣軍事革命委員會、政務部人民經濟部、國家保安部人民教育部勞働部人民連絡部▲議長『베리스키ㅣ』▲副議長『스밀노푸』▲委員『쓰리ㅣ힌、베ㄷ싸룬、포치키레푸』

近東會議彙報

近東會議失敗乎

(로ㅣ산ㄴ누 十一月二十日發電) 近東講和會議도 結局失敗의 運命을 遭遇할 模樣이며 土耳其委員은 特히 同會議가 些少의 事에 時間을 空費하고 委員會의 經過가 一向進步치 못함을 歎하고 露國은 不遠間會議에 參加할 터이오 米國은 土耳其와 單獨交涉을 希望한다

預金增、貸出增

京城組銀決算

京城組合銀行十一月三十日現在預金額은 七千百四十六萬餘圓으로 此를 十一月十五日末現在에 比하면 預金百七千九百九十六萬餘圓貸出高五十七萬圓이 增加하고 貸出에도 百三十二萬餘圓이 增加하얏는데 其詳細는 左와 如하더라

預金額

	十一月末	十一月上半
定期預金	三七、一五八、六〇四	三六、八〇六、八三三
當座預金	一〇、四三四、〇〇四	一〇、三三七、三八五
特別當座	一〇、三五六、一一三	一〇、九三三、九三三
諸預金	一三、六三〇、三二九	一一、八二三、三八六
合計	七一、四六八、九九九	六九、八七〇、五四九

貸出額

	十一月末	十一月上半
貸付金	三六、六四八、八二七	三三、四五九、四九二
當座貸越	四、一二三、一三八	四、三二六、八〇四
割引手形	三九、〇一四、五一五	三八、六八〇、一〇六
荷爲替	一八八、二九一	一七七、八八九
合計	七九、九六四、七七一	七六、六四四、二七一

所在額

有價證券	八、六七三、二四一	八、六〇六、三〇三
預金額	二、三三〇、八五五	一、六九九、一〇三
金銀有高	三、二三五、五八一	二、三四七、三六

財界凋殘影響

十一月中京城手形交換所不渡手形取扱數는 日本人五十四名朝鮮人三十五名合計八十九名인데 不渡手形의 最多數는 料理店置屋業十二個所

米國의 離婚市

米國『리노』市는 離婚市로 有名하거니와 一邊으로는 結婚市라 稱할 것이다◇『리노』市에서는 離婚手續이 簡單한 故로 桑港等地에서 逗留次來到하는 者도 有하야 旅舘은 擧皆此離婚者로 充滿된다◇其中에는 離婚하러 來하얏다가 偶然히 結婚하는 者도 不少하다◇男子가『리노』市에 가지 아니하랴오』하면 此는 一邊으로 離婚을 豫料하며 結婚을 申請하는 것이오 又女子가『리노市에 갑시다』하면 一邊으로 離婚을 承認하며 結婚을 承認하는 것이다、故로 米國에 往하면『리노市에서 結婚할 것이라』한다

某銀行取引停止를 受한 中에는 相當한 人도 有하고 財界恐荒의 結果買客이 稀少하야 結局經營의 窮迫한 者오 日本人側에서 其次는 食糧雜貨商四戶貸金業의 三戶인데 金融을 支配하는 貸金業者에 不渡를 振出함은 信用에 下落함을 窺知할 事일지며 朝鮮人側에서는 穀物商、藥種商各々五戶를 筆頭로 하고 雜貨商三戶가 其次이라더라

朝鐵在貨狀況

十一月下旬

本旬末朝鐵在貨는 南行一萬一千五百四噸北行九千五百六十五噸計二萬一千六十九噸으로 前旬에 比하야 四千二十五噸이 增加하얏는데 此는 石炭 薪炭 세메ㄴ도 石灰等季節品의 出荷가 好況을 呈하얏는데 社用品의 出廻도 相當한 數量을 呈하얏다더라

金組新設狀況

京城府內에 目下五金融組合이 在한데 財界不況의 關係로 中流階級以下의 府民希望에 對한 金融機關不足의 理由下에 東大門、西大門、新龍山金融組合의 新設을 申請中이든 바 新龍山에 新設함은 其後審査가 進行한 結果不遠間認可할지오 其低利資金은 五萬圓으로 此로써 新龍山方面의 資金이 逼迫한 金融界에 融通될지나 東大門、西大門兩者도 所設金融組合의 區域關係上更히 硏究를 要할 點이 有하다고 認하고 目下考慮硏究中이라더라

自殺에 對한 觀念

自殺은 往昔부터 實行되는 것이나 某種族은 自殺을 大忌하야 自殺者의 屍體는 葬儀도 設行치 아니하고 埋葬도 아니하는 者가 有하다◇此는 自殺者의 亡靈은 靈界에 入치 못한다 함이니 即自殺은 神의 罪惡인 故로 自殺者는 天國에 入키 不能하고 空界彷徨한다는 所以이다◇『아라바아인드』人은 自殺者가 失望의 自殺이나 病祟의 自殺을 勿論하고 埋葬치 아니하고 即時洞中에 投棄한다◇『사호마』人은 自殺者의 死骸를 埋葬치 아니하고 原野에 遺棄하야 野獸로 食케 한다◇『페ㄷ』島에서는 自殺者의 屍體는 家族의 墓地에 埋葬치 아니하고 自殺한 場所에 仍히 埋葬하는 것이 戰死者에 對함과 同一하다◇『칸보지아』의『바나부』人도 自殺者에 屍體는 祖先의 墓地에 埋葬을 不許하고 遠處의 森林中에 埋葬한다◇如此히 埋葬하는 觀念은 死者의 死後生活의 迷信으로 因함이니 即水葬하거나 野獸로 食케 하거나 其場所에서 仍히 埋葬하거나 遠處에 埋葬하면 此不吉한 亡靈이 他의 亡靈과 交際하야 其不吉한 危險性을 他에 傳染치 아니한다는 信仰이 有한 所以다

面豫算式全部改正

面豫算式은 大正十年에 豫定되얏스나 新米法規의 改正이 有하야 此에 贈應케 하기 爲하야 今回에 左와 如히 全部改正을 行하얏더라

歲入

一、國稅及其他의 交付金額에 改正된 故로 第三款附記를 改함

二、從來의 豫算式으로는 補助金의 內容歲出에 對한 關係가 明確치 못하얏슴으로써 詳細記載케 하기로 함

歲出

一、從來面吏員으로는 書記뿐이엿스나 曩者에 書記뿐안이라 副長及技手等을 設하게 된 故로 給與의 欄을 改正함

二、選擧費의 科目을 新히 改함

三、衛生費中傳染病院隔離病舍費에 關하야는 其費目을 明確케 함과 共히 歲入補助金과의 關係를 一見知悉히 도록 함

參考品陳列供覽

總督府農務課에서는 今番에 開催되는 各道農務課長及道農業技術官會同을 際하야 本府正門構內에 農産物의 參考品及改良農具等一切을 陳列하야 觀覽에 供케 하기로 準備에 奔忙中이더라

地中海實戰講演

二日午後三時부터 四時까지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篠原末彦氏의 歐洲戰爭地中海에 在한 實戰에 關한 講演이 有하얏더라

米國大使一行動靜

東京駐在米國大使『와ㅣ레ㄴ』氏一行은 二日午後七時五十分南大門驛着朝鮮『호텔』에 投宿하얏는데 三日午前十一時부터 一行은 昌德宮仁政殿을 拜觀하고 午後零時半總督官邸의 午餐會에 出席하얏다가 同十一時發列車로 北行한다더라

辭令

大正十一年十一月二十八日

總督府事務官　倉橋鉦

官報々告主任을 命함

大正十一年十一月三十日

京城女子高等普通學校長　長田富作

熊本、大阪及東京에 出張을 命함

民聲

이제와서는 우리 民衆도 長風을 御하고 孤雲을 凌하야 羽族을 征服하고 空中生活을 할 運命을 確實히 開拓하는 것이야▲上海로온 通信을 據한즉 우리 青年朴泰河金震一兩君은 中華廣東政府飛行學校에 入學한지 一週年이 되거나 못되거나 하는 短期間에 相當한 卒業도 맛처다 못하고 도 그 英勇壯快한 技術이 崇智兩軍隊의 航空隊에 從事하야 天空界에 無雙하야 中國革派孫逸仙許然的技能은 一般世人의 驚歎하는 贊揚을 밧는다▲卒業도 못하고 도 그러할진데 完全히 卒業하고 嫻熟히 鍊習을 하면 그 奇妙한 飛行上神術이 果然으로 다시 엇더할가 쏘는 그 뿐안이라 米國에 도 法國에도 飛行術을 學習하는 우리 青年이 現在多數이라하니 우리의 天才를 空中에 發表하라는가▲京城市內의 勞銀調查表를 見한즉 朝鮮勞働者의 賃銀이 日中勞働者에 比하야 最低度인데 이것을 不拘하고 二三割乃至四五割이 多한 賃銀率을 가진 中國勞働者에게 勞動區域을 蠶食하는 威嚇를 被함은 不可思議가 안인가▲이것은 朝鮮勞働者의 技能、鍊熱이 모다 中華勞働者에 及지 못한다 하겟지만은 朝鮮勞働者는 勤勉心과 堅忍性이 薄弱하야 作業上에 持久的奮鬪를 하지 못하는 것이 主要原因이라할 것이니▲生活이 이 갓치 困難한 境遇에 勞銀々々지 外人에게 流出케 하면 將次 엇지 捱過를 하랴는가 一般勞動級은 生死的問題를 決할으로 하고 奮發치 안이하면 안이 된다

商況

大阪三品

十二月二日前場

限月	初付	止値
十二月限	二〇七、九〇	二〇八、七〇
一月限	二一〇、九〇	二一一、〇〇
二月限	二一三、九〇	二一四、四〇
三月限	二一五、九〇	二一七、四〇
四月限	二一八、六〇	二一九、一〇
五月限	二一八、八〇	二一九、五〇

大阪株式

十二月二日前場

銘柄	寄	引
大株	一〇一、三〇	一〇一、八〇
同新	八一、一〇	八一、三〇
鐘紡	二八〇、二〇	二八一、二〇
同新	二六〇、九〇	二六一、九〇
商船	……	……
同新	……	……
郵船	……	……
同新	……	……
東紡	一〇九、〇〇	……

京取市場

京取續騰

京信暴騰

昨日後場은 大阪이 別無動變으로 入報하엿스나 京取京信合同이 實現되겟다는 傳說로 人氣가 替히 買勢로 猛進하야 京取는 五十圓臺의 大關門을 突破하고 京信舊株는 四十三圓突飛로 終止하엿는데 今朝大阪大新은 昨日止價보다 一圓四十錢高로 七十九圓九十錢으로 鐘紡新이 一圓三十錢高로 二百七十圓十錢으로 入電되매 本場人氣는 最近의 興味를 呈하야 熱狂的으로 立會하니 京取는 昨日止價보다 一圓七十錢高로 五十二圓寄付하야 田中井口池田川崎新田中村方奎煥賞에 金應龍櫻谷北村閔鎔鎬白井買로 三五十錢으로 高價三圓々지 買하다가 二圓臺로 波瀾을 呈하다가 結局一圓七十錢에 止하엿는데 約五千株取引되엿고 仁取는 有力者의 關係로 一百十九圓寄付로 二十圓二十錢에 止하엿고 同新은 四十二圓으로 二十錢高로 五十錢으로 止하엿고 야 步調를 五十錢에 止하엿고 安取는 無氣한 形勢로 付價無로 賣買不成하엿고 大新은 五十錢低로 八十圓九十錢寄付하야 三十錢으로 八十圓々지 買하다가 七十九圓臺로 結局八十圓十錢에 止하엿고 週間에 鮮新 二十一圓三十錢으로 京信은 合併問題의 波動을 隨하야 突飛價四十五圓寄付로 六圓九十錢에 止하엿고 同新은 十二圓으로 三十錢々지 買되엿고 其他株도 小堅勢裡로 止場되엿는데 場面은 最近盛況을 呈하도다 要컨데 京取와 京信의 合同은 漸次實現性을 演出하는 貌樣이 有한 바 果然成效가 되면 一大波瀾을 變動하리라 觀察하며 探算上으로는 現今京取五十圓臺에 二割配當三割比에 七十五圓臺將來에는 配當을 假定하면 이도 無得히 出現되리라하나 容或無怪의 說이나 此는 頗히 疑問이고 目前은 何如間合併이 有利한 結果樂觀하라 料로 多少强氣를 帶한 狀態이더라

京城綿糸布時勢

十二月二日

綿布三A	二六六、〇〇	
九龍	二五六、〇〇	
大A	二四六、〇〇	
金	二二五、〇〇	
金剛山	二一〇、〇〇	
諸同	一八五、〇〇	

大阪期米

十二月二日前場

節	當寄	中寄	先寄
（一節）	二四、九四	二四、七九	二五、〇九
（二節）	二四、九〇	二四、九七	二五、〇〇
（三節）		四九八	
（四節）		九六	
（五節）		九五	
（六節）		九四	
（七節）		九二	
（八節）		九七	
（九節）		九八	
止		二五、〇二	

十二月二日前場

前場은 阪地中限二十四圓六十八錢으로 新甫는 二十五圓九十錢인 三十七丁上鞘로 發會하야 四圓十五錢臺로 反落하엿고 當地는 中限二十圓七十錢으로 新甫는 二十圓七十九錢인 九丁上鞘로 發會하야 八十錢高價를 生하고 七十二錢인 最低價를 示한 後 當日의 形勢로는 未曾有의 閑散을 呈하고 後場에 至하야도 亦膠着不振하야 阪地二十四圓九十錢으로 八十一錢々지 下押한 亦閑散의 態를 作함과 共히 當地는 二十圓六十九錢에 始하야 六十錢々지 下落하엿다가 反히 六十八錢에 小强히 後場을 止하엿는데 今前場에 至하야 阪地初付二十四圓九十七錢으로 二節二十五圓인 昨止價보다 十九丁反高의 報를 受하고 도 人氣는 案外의 軟味를 帶하고 立會하니

▲第一節 當限은 不成이나 中限은 昨止價보다 五丁高히 初付하다

▲第二節 當限은 不成이나 中限은 五十五錢으로 五十六錢에 止하고 先限은 六十七錢에 始하야 六十九錢에 止하다

▲第三節 當限은 亦不成이나 中限은 五十五錢으로 四錢을 示한 後五錢에 止하고 先限은 六十五錢에 始하야 七錢으로 小戾하엿다가 六錢에 止하다

▲第四節 當中兩限은 不成이나 先限은 六十九錢一口를 生하고 止하다

仁川期米

十二月一日後場

（益々閑散）

今前場은 大阪은 二十四圓十五錢으로 一躍發會한 後四圓九十錢臺로 反

十二月二日前場

▲第一節 當限은 不成이나 中限은 二十圓六十錢으로 先限은 二十圓六十錢으로 立付하니

▲第二節 阪地後報八十九錢으로 當限은 不成이나 中限은 八十三錢인 稍低를 受하고 當限은 不成이나 中限은 六十一錢으로 五十二錢에 止하고 先限은 六十五錢에 始하니 形勢小弛하야 六十錢으로 下押하엿다가 六十三錢에 止하다

▲第三節 當中兩限은 不成이나 先限은 六十錢의 始하야 六十四錢으로

▲第四節 阪地後報八十二錢一錢의 焦付의 勢를 伴하고 當中兩限은 不成이나 先限은 六十四錢에 始하야 八錢々지 稍返한 後에 止하다

▲第五節 當限은 不成이나 中限은 五十五錢으로 六錢에 止하고 先限은 六十八錢에 始하야 五錢에 止하엿다가 九錢으로 反騰한 八錢에 後場을 止하니 高低의 差가 九丁이더라

▲第五節 當限은 不成으나 中限은 五十七錢으로 九錢에 止하고 先限은 六十七錢에서 八錢으로 上하야 六十八錢에 止하다

▲第六節 當限은 不成이나 中限은 六十九錢으로 三錢에 止하고 先限은 六十九錢에 止하야 六十三錢、前場을 示하나 高低의 差가 八丁이더라

公定價格

初付	二十圓七十三錢
止值	二十圓六十九錢
高値	二十圓六十八錢
安値	二十圓六十七錢
一節	二十圓七十三錢
二節	二十圓六十八錢
三節	二十圓六十六錢
四節	二十圓六十九錢
五節	二十圓七十三錢
六節	二十圓六十五錢

二日後場（電話）

初付	二十圓七十錢
止値	二十一圓〇四錢
高値	二十一圓〇七錢
安値	二十圓七十四錢
一節	二十圓七十四錢
二節	二十圓八十四錢
三節	二十圓九十一錢
四節	二十圓九十七錢
五節	二十一圓

取組高

當限	一千五百石
中限	一萬九千六百石
先限	一萬八千四百石
買賣總石數	四萬一百石
定期總取組高	五、六四七、九〇〇

閑散寂寞의 勢

每年十二月은 所謂『餅搗』時勢로 保勢를 作한다는 例言과 如히 昨發會當日부터 近年稀有의 閑散을 呈하엿섯다 實로 本月은 特筆할 材料가 無히 數月前부터 第一豐作의 關係와 一方으로 金融梗塞의 歎과 物價調節의 聲이 相應하야 大海를 決함과 如한 大暴落을 致하는 同時에 軟軍은 旣히 凱旋을 奏한 後인데 更히 添落할 餘地가 無하고 又는 買上할 餘力도 無함으로 더욱 保勢를 繼續할 模樣이라 例年은 定期師의 金錢融通이 容易하야 市場形勢를 左右하엿스나 本年은 一般經濟界에서 非常한 疲弊를 當하야 地方米客이 稀潤할 뿐 안이라 地場筋도 亦寂寞하야 前空後無한 閑散을 作하리라 고 市評이 區々

東京株式

十二月二日前場

京株市場賣買價

二日

我新飛行家朴泰河、金震一兩君의大成功을祝賀

大陸天空에 鵬翼을 雙拂

風雲을 征服하고 海陸을 縱橫

◇중국군인계에서 혁혁한 성명이 진동◇

◇우리민족의 비행가가 증가하는 차데◇

우리인류의문명이 나날이진보하야 이제로부터는우리의서식하는 륙디를떠나가지고 공중생활을하게된이때에 우리조선동포의정신도아못조록세계덕문명에락오가되지안이하고남과갓치향상적생활을하야볼양으로새학술을연구함에분망함은 우리의눈으로 보는바어니와 근세의가장신문명인비힝술로말할지라도 이를연구하기위하야 동서양각국에가서 천신만고를맛보는이가적지안이함이사실이라 그럼으로 본사에서 안창남군의고국비힝을후원코자하든본의는안군을벽두로시작하야 가지고 동서양각처에서씩고하는우리조선동포의비힝가를단합하야서우리죠선민족의비힝술이가히세계에자랑할만치되기를희망하든바이러니신경의감각이민속하고동포에게동정을신장하는 동아일보사에서우리조선일보사가사무는공총한중에더욱이과중호르력이될가념려하야금번에 안군의더비힝을계획하는터인즉안군의장쾌한비힝과가녕성의치운뎐공을 미구에 돌파할터이니이에터하야는 그를주최한자가 누구이든지 그를후원하는자가 누구이든지 그들계획하는수단이 엇더하든지물론하고 그사업인즉우리민족의사업이라그런고로우리조선일보의목적호바는별로수고되는바도업시착착히진힝되는중이라다만그사업이완전히성공하기만축하하며또는동아일보의수고를호번위로치안을수업는동시에 또한상해정보에의지한즉 광동(廣東)비힝학교에서 비힝술을 연구하는 박대하(朴泰河)김진일(金震一)량군이 이를 공부한지 몃날이못됨을 불구하고 그기술이 가장 신묘할뿐만안이라 실디전장에 참가하야 중국디륙의 공긔를 진당하고 풍운을정복하야 그성명이 중국군인계에 진동하며 계속하야남경혁명군에종군하야 방금장쾌한 활동에 종사하는중이라하니 이보도를접한우리는 우리민족의비힝가가 졈졈증가하는 동시에 그기능이 졈졈진보되야 장차서양을 압도할긔세로진힝홈을가히알것이라 그럼으로 우리는깃분마음을 스사로검치못하며 겸하야 기술이동서양의비힝계를정복하야더승리를어더는장릭의대성공을성심성의로두손을노피들어축하하노라

大韓民國獨立公債

額面約二萬圓을가지고

독립자금을모집하라다가발각 동대문서에서관계자를취됴중

지난달이십구일부터시내동대문경찰서고등계에서는 주야를불분하고 계원일동이 활동하기에무순중대사건이 반듯이 잇나보다하얏더니 과연독립단의 관계가잇는리규형(李圭亨或萬埈)이외몃사람을검속하얏기에 그입아다으로 그와갓치 활동하든것인가하얏더니 계속하야 이왕티종교남도본사뎐리(大倧敎南道本司典理)이던 강우(姜虞)씨와 씨의아들과손자삼터를검속한바 일반은무순일인지 알지못하야 민우긍겁 히여이더니그니용을탐문한즉전긔리모사건과는관계가업고 대한민국독립공채증서(大韓民國獨立公債證書)일면약이만원어치를가지고독립자금을모집하라다가사실이발각된것이라하며 그일에관계잇는사람을테포하기위하야 동서계원이강경(江景)디방까지출장하야론산(論山)군텽서긔강모(姜某)이외두사람을 잡아가지고올나와서관계자합일곱사람을 방금취됴 중이라하며강우씨는아직까지 그일에 직접관계가잇는무순증거는보지못하얏슴으로자세히 취됴한뒤가안이면 몰으깃다는데엇지하면씨는무사하게될는지도몰으겟다더라

避難民이又通過

작일오전에이십삼명이

아라사의피란민들은요사이와갓치 몹시치운이셰에 먹을것이 업고입을것이업서넘는들로 방황하다가 견티지못하야 요사이에날마다우리샹을지나 혹은중국으로 혹은일본으로가게되얏는데 작일오전에도 또한피란민 스섯시사십오분에도 들어왓다가 다물세사람이 경성으로 차로만주봉텬(奉天)디방을 향하야셔나가게되얏셧다더라

오전의료금을 밧든것까지업시하야촌민이자유로시베에나무바리를 몰고단이게하엿다더라(겸이포)

宣傳費云々은風說

탕잡지사필화사건에대하야 모검사는아래와갓치말하여

신텬디(新天地)신생활(新生活)의 량잡지사의 필화사건으로 인하야 구인된 제씨는요사이에도터원(大原)검사에게 련일취됴를밧는중인 티 이사건의니용은 날이갈사록일변의심이더욱심하여져셔여러가지의풍설이잇셔혹은적화선전비 삼십마원을먹엇다는말셔지잇스나이에터하야경성디방법원모검사는말하되나도그러한말을드른일도잇고모신문에까지 긔지되여잇는것을 보앗슴니다만은 이는조금도리치에당치안이한말이올시다 만약그사람들의말과 갓치선젼비 십십만원을닉왓다하면 그돈을어데다가소비하엿겟슴닛가 경셩갓치 협착한곳에서는단돈일이만원을 딈시에소비하더라도 다른사람들이 곳알게되는것인즉 그러한말은우리가경험상으로 보드라도 사실이무근한것인줄능히 알수가잇다하더라

新聞發行을禁止

희삼위의세신문이

희삼위(海蔘威)에서발힝하는일본인의포염일보(浦鹽日報)、포염죠일(浦鹽朝日)과조선인의한국신보(韓國新報)는적군(赤軍)이뎜령한후지난 이십륙일에마참너 다발힝금지를당하얏다더라(국경뎡보)

是亦物價調節

나무갑을나릴방침으로 중기업자를입시한다고

황히도겸이포(兼二浦)경찰서에서는 근리세류힝하는물가됴절(物價調節)의방침을실힝하기위하야박

『옴스크』在留民救濟可決

당디에서구원하야달나고청원 일본내각회의에서구제하자고

온텩은경긔도리성군에잇고 현재는아라사『옴스크』에잇는리승보씨(李勝保權永綴)씨들은요사이일본동경시청니선과(鮮內鮮課)에일으러먹을것업고입을것업서굴머죽게된우리의동포칠빅명과일본사람이십명의죽어가는성명을구원하여달나고청원하엿다는데이제그니용을들어말하면이덜은얼마전부터당디에서혹은상업도하며 로동하여셩활하여오든바 연

그곳시민

둘의식량품(食糧品)은일본사람이경영하는뎐즁상뎜(田中商店)에서구입(購入)하

각의에서

는이러한일을우리가맛당이 구제하여줄것이라고

金文奎二個年

외국인에에터하야 일본령사에게항의?

漏電으로重傷

별안간루뎐이됨으로 탓뎐소녀한아가부상

大阪의朝鮮勞働者

去一日에同盟會를創立

재류조선로동자상황됴사회와 일본로동총동맹에서극력후원

일본뒤판(大阪)은상공업의즁심디라무순계급(階級)보다도로동자가만흔곳임으로 먹고살것이업서일본으로셔나오는조선로동자도 그수효가삼만명이라는 움직한만흔수효가잇스며 그들의 성황도그참담함은 이로다형언할수 업는일이나 그러나 약한자의위티한단결이업서서향상유갑으로성각하든바 종

창립총회

리일본지류조선로동자상황됴사회(日本在留朝鮮勞働者狀況調査會)에서는 그들의리세를 도으며또다른로동운동에관한것을지도하기위하야위원

오륙인이

나리여온다는터

太極團員의豫審終結

군복을입고군모을쓰고군긔를 가지고군자금을모집하든일파

드러가서

미리부터

준비하여 가지고 잇는 단총과 폭탄을 박효선의 집에다가 되이고 자긔들은 조선독립을 목뎍한 티국단원으로 군자금을 모집하기위하야 왓슨즉 사

平安北道熙川郡眞面杏川洞 高仁植(二四)

平南江西郡洧次面人里 金啓弼(二七)

咸南定平郡高山面豐西里三五 崔景二(五五)

江原道橫城郡屯田面烏頭里四八 孫慶右(二〇)

領事館燒失은放火?

전분가의감뎡한바에의하면 벽을헐고불을노흔것갓다고

간도총령사관(間島總領事館)이란 젼문가의감뎡에의한즉나무로만든 벽을벗기고 그속에 불을노흔것인듯하다는터 불어난 장소는 우리실(武器室)둘어가는 어구의인편에잇는나무로만든벽이오 그벽은층티에 쌕벗처잇고층티아리에는 물건을너허두는데라 용이히들어갈수업는장소인바과연노흔불이라고하면 그속에 잠입하야나무로만든벽을파괴한후굴건을넛코불을노아 차차불길이 세여지도록한것으로몰수밧게업고그수단은 용의주도한것이엇더라

『웰취』監督歸國

예수교북감리교감독신학박사(監理敎監督神學博士)『웰취』씨

扶餘에도大雪

소설절후의자눈이오가는 당디는이십여년리의처음 충남부여(忠南扶餘)디방에는지난달이십오일경의일긔가 치워지며 눈파비가오더니 밤부터는 눈이 히오기시작하야 이십팔일밤셔지왓는데눈이한자이상이싸이여셔당일은우편이불통하엿는데 당디에는이가치만히온눈은이십년리의처음이라고한다더라(부여)

紀念祝賀式의盛況

靑年會聯合會의二週年

뎡각전부터만원을일우어섯고 경셩악대의주악은일반을위안

조선청년회련합회(朝鮮靑年會聯合會)에이주년창립긔념식졈러념

우리청년

웅상하게

긔념강연

春川의斷煙同盟會

유지호청년열호사람과 부인계의유력한호사람

마음디로

動力停電

公衆道德妨害를警戒

자동뎐화실을변소로쓰는고로 이것을발견만하면엄히처벌

독자위안

홍힝호바

大膽한窃盜犯

論山에京城警官

사건은시국관계가되는듯 중티한사건인듯하다고

지난달이십구일오후에 경셩동티문경찰서에서산니(山内)도뎐(島田)두형사부장이 다수한형사를다리고론산(論山)에출장하야 당디주재소경관과협력하야 군청서긔강모(姜某)를테포한후즉시출발하엿는데사실은 비밀에붓침으로자셔한니용은알수 업스나 동티문서에테포된모중티사건에관계가잇는지 모르깃다더라(론산)

民衆劇團을歡迎

신설한지주좌에서 본보의독가위안극

수천관직

第一日의慰安劇

본보의독가를위한야 독자위안디회를기최

木報晉州支局 尹樹鉉氏 二十圓 拾圓

新町遊廓의大火

鐵槍으로店主를突刺

강도가일본인상뎜에침입하야 대답하게주인의머리를찔넛서

테포될가

富豪의子가詐欺

남을속이더니 발각테포되여서

일본사람

함씌자고

이셧다는

할수업시

명이쌀나

약방문이

醫生을告訴

光州面의火災

어더서지

集會

잔소리